

동아-윤정미 장학금 결과보고서(국내봉사)

60180168 박윤서

1. 일정

7월 16일(일) ~ 7월 18일(화)

2. 장소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보호소

3. 느낀 점

제가 다녀온 행복이네 유기견 보호소는 생각보다 따뜻하면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봉사장소에 도착했을 때, 보호소장님께서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고 손자대하듯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봉사를 시작하니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맞이한 강아지는 뒷다리가 안으로 접혀 아빠다리를 한 채 앞발로 기어다니는 강아지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은 척을 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를 갔던 날에 남자봉사자가 저밖에 없었던 관계로, 제가 철창 안에 들어가서 변을 치우고, 먹이를 주고 견사를 정리하는, 비교적 고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루 기준 봉사시간은 3~4시간 정도였지만 끝난 후에는 의자에서 발을 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200여마리의 강아지를 이렇게 매일 케어해야하는 보호소장님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봉사 중에, 어쩌다가 보호소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여쭙어보았는데 수십년전에 불쌍한 강아지 한 마리를 길에서 데려다가 돌봐준 것이 시발점이 되어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본인의 몸상태는 허리, 무릎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으신 것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오늘 고생 너무 많았다며, 일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를 처음 보았다며 칭찬해주시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 든 생각은 제가 이 큰 보호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제주도에 놀러오게 되면 꼭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봉사를 떠나기 전 작성했었던 계획서에서도 봉사는 봉사자의 선한 마음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더욱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z0076

...



좋아요 102개

qaz0076 오늘 비오는 일요일에도 행복이네에 봉사자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님 양희정님 박혜수님 박유진님 김민주님 김민경님 외 3분
감사합니다

김민주님께서 봉사가 끝난 후 바베시아걸린 하늘이를 위해서 소고기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